

# 민주, 탈당 전력자 페널티 강화...내년 지방선거 변수로

### 합당으로 자동 복당한 경우도 감점 광주·전남 단체장 등 6~7명 될 듯 대선 전 세걸집에 악영향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당 전력자에게 부과하는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최근 10년 이내 탈당 경력이 있는 현역 자치단체장들과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준비하는 후보

군들에게는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일 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은 2일 열린 임시전국대회의원대회에서 당내 경선에서 탈당 전력자에게 부과하는 감점을 '합당을 통해 자동으로 복당한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탈당한 이력이 있는 후보에게 경선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는 내용의 당헌을 개정했다.

민주당이 '최근 4년 이내 탈당자를 최근 10년 이내로' 강화한데 이어 자동 복당자에게도 감산을 적용하는 등 탈당 경력자에 대한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놓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향후 신당 창당 등으로 민주당을 이탈(탈당)하는 인사들을 우려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이번 당헌 개정에 따라 당내 경선과정의 탈당 경력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서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광주·전남지역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 중에서 감산 대상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광주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 탈당 경력이 있거나 다른 당으로 갔다가 복당한 단체장은 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의 경우도 4~5명이 해당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탈당 전력자들이 광주와 전남에 상당수 포진하고 있는 것은 호남에 '안철수 바람'이 불 때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 당으로 옮겼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한 정치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당헌 101조(중복적용금지 및 예외 등)에 탈당 경력자 경선 감산의 경우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와 그 사유를 명시해 최고위원회 의결로 감산을 달리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따라서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감산의 적용이 다르게 작용될 것으로 보여 당

내 경선 과정에서 탈당 경력 감산 점수에 따른 변수가 상당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탈당 경력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에 대항한 세 걸집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그동안 당을 지켜온 인사들은 탈당 전력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를 반기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들이나 후보와 탈당 후 복당한 인사들에 대한 차별은 있어야 하지만, 대선에 임하는 당으로서 세 걸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최권필 기자 cki@kwangju.co.kr



'코로나 방역점검회의' 브리핑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초청사에서 '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가운데)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도로 친문당·한국당? ...여야, 재보선 민심에도 과거 회귀하나

### 여 원내대표·최고위원 상당수 친문 야 "탄핵 잘못" 등 강경 보수 우려

여야가 모두 양극단의 강성 일색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 국난 해결을 요구하는 성난 민심이 확인됐지만, 오히려 정치권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기반 다지기에 매몰된 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당대회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진용을 두고 '도로 친문당'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윤동권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 출신인 송영길 신임 당 대표는 친문 핵심과는 거리가 있지만,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용민·강병원·김영배 등 최고위원 상당

수가 '친문 일색'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이날 첫 최고위에서부터 '검찰개혁과 언론 개혁'(김용민), "중부세 완화는 잘못된 처방"(강병원) 등 '문파'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듯한 강경한 발언이 터져 나왔다.

당내서는 재보선 참패 직후 일었던 자성과 쇄신의 목소리가 강성 지도부의 개혁 드라이브 속에 묻혀버리는 것이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오가며 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지나친 '친정체제' 공고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조용천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은 2016년 총선에서 참패했지만, 핵심 세력인 친박은 책임지기는커녕 '박근혜의 복심' 이정현을 내세워 당을 장악했다"며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됐다면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친문 비문이 문제가 아니라, 당이 '일색'이라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다. 이견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며 "쇄신 전향도 비판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운다. 지난해 말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터다. 하지만 최근 5선 서병수 의원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포문을 연 데 이어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까지 분출하며 자칫 옛 자유한국당 '강경 보수'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 핵심 관계자는 "김종인 노선을 이탈할 때는 도로 한국당이 맞는다. 그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혹독한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명예 흑산면민...당대표되면 흑산공항 건설 앞장"

### 전남 온 국민의힘 당권주자 조경태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53·부산 사하구 을·5선) 의원은 3일 "흑산공항 건설은 국토균형발전, 도서주민 이동권 보장 관점에서 봐야 한다. 당 대표가 되면 전남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흑산공항 착공을 위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당대표 후보 출마 선언에 앞서 이날 전남도의회를 찾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흑산도와 홍도에 다녀간 적이 있다. 도서지역민의 어려움을 잘 알고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인연으로 명예 흑산면민 자격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조 의원은 환경단체 반발 등 이유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착공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심마를 주민들에게 하늘길을 열어주고 관광객 유입으로 낙후된 전남에 새로운 동력을 안기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울릉공항 수준으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아래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국민의힘 상황에선 입당이 쉽지 않으리라



사법적 판단이 끝난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광주·전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세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정현 전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전례가 있다. 호남이라고 해도 민주당만 100%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깨어있는 광주전남 지역민이라면 국민의 힘이 잘 하면 지지를 보내 줄 것이다. 당대표가 되면 광주·전남을 비롯해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을 특별히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여의도 브리핑

## 김승남 "이건희 특별관-문화중심도시 사업 연계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이건희 특별관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60년대에 경부선과 1969년에 개통한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거점중심 경제 개발로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발전의 중심이 된 경남지역과는 다르게 호남지역은 소외되었고,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쇠퇴의 길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지역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해 생겨난 것이 '문화수도-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전시켜 지역불균형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민주



정신의 세계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스페인의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은 환경오염이 극심했던 지방의 공업도시를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탈바꿈시켰다. 랜드마크 하나가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삼성의 문화예술 유산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된다면, 문화예술 도시의 브랜드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큰 울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 모던건설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집입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영광군 공고 제2021-604호

### 대마 전기자동차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안),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변경) 개발사업의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합동 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4.  
영광군수

- 사업개요**
  - 사 업 명: 대마 전기자동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화평리, 송죽리 일원
  - 사업기간: 2009년 ~ 2024년
  - 사업면적: 1,888,996.7㎡ (1단계(기조성) - 1,651,848.7㎡, 2단계(확장) - 237,148.0㎡)
- 합동설명회 개최**
  - 일 시: 2021. 5. 11(화) 14:00
  - 장 소: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복지회관 회의실(2층)
  - 내 용: 대마 전기자동차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
  - 공람기간: 2021. 5. 4. ~ 2021. 5. 25(21일간)
  - 공람장소: 영광청정 이모빌리티산업과(별관 2층), 영광군 대마면사무소, 고장군 대산면사무소(환경영향평가 대상)
  - 의견제출: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작성 제출 (직접제출 또는 우편/FAX)
  - ※ 우편/FAX 제출처: 영광군 이모빌리티산업과(별관 2층) / FAX 061-350-4749
  - 관제도시: 공람장소에 비치
- 기타사항**
  - 본 공고문은 중앙 일간신문 및 전라남도 내 일간신문과 전라남도 영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일정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이모빌리티산업과(☎ 061-350-46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이일원(470922-XXXXXX)  
· 최후주조: 광주 서구 화운로199번길 9 6층 102호(화평동, 개나리아파트)

피상속인 망 이일원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 정법원 2021년단3126호로 신청하여 2021년 4월 2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재산과 및 상속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5월 4일

· 상속인: 이다빈(961128-XXXXXX) 광주 서구 화운로199번길 9 6층 102호(화평동, 개나리아파트)

· 신고기간: 2021. 5. 4. ~ 2021. 7. 13.  
· 채권신고처: 상속인 이다빈의 주소

---

### 산행안내

5월9일(일)

▲광주K산악회 5월9일(일) 경남 산청군, 황매산, 철쭉꽃 산행, 염주체육관 07:00, 동아병원 07:05, 롯데백화점 07:10, 광주역 07:15, 문예후문 07:25, 비엔누차장 07:30

※ 다음카페 광주K산악회 ☎ 010 7794 6920

### 光州日報 先州日報

####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철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나**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약구독 220-0550